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식 조사

보건행정과 김 미
전임강사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노인문제란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란 노년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이 생명의 재생산이 불충분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¹⁾ 즉 노인과 그의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노인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노인층의 문제로 노동의 상실로인한 소득의 감소, 일상생활 능력의 쇠퇴, 자주적인 personality의 상실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부양, 가사적부양, 신체적부양, 정서적부양이 불충분하거나 결여되었을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²⁾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노령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노후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사회를 촉진시키면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붕괴로 전통적 가족기능이 해체되고 핵가족제도를 선호함으로써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모와 자식은 직업이 달라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가르쳐줄 것이 없어지므로서 통제할 힘이 없어진다. 다섯째, 가치체계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유교사상이 지배는 사회에서는 위계질서적인 경로효친의 윤리가 중요한 가치규범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평등주의, 민주주의가 기본정신이며 이는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와의 갈등이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³⁾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문제라고 한다. 사회복지가 잘된 서구의 노인들은 고독을 제일 큰 노인문제라고 손꼽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약 78%가 생계

¹⁾ 嗣田義也, 老後問題論, 東京, 垣内出版, 1980, p.324.

²⁾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년.

³⁾ 박재간,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성과 전망, 노인정책토론회, 1988년.

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의 당면과제 중 경제적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몇가지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는데 노인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것과 가족의 지원 또는 사회적인 지원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노인과 가족과 사회가 동시에 갖추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국노인은 가족과의 동거율이 높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과의 결속이 강하고 자녀들의 부양과 보호속에서 노년후기를 보내는것이 특징이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한국노인이 외국노인보다 행복도가 낮다고 조사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행복하지 않다는 한국 24%, 일본 6.9%, 태국 27.9%, 미국 5.5%, 영국 2.8%, 프랑스 11.4%) 노인의 만족은 동거여부나 생활환경뿐 아니라 노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책임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갖는것을 제안하고 있는 논의는⁵⁾ 앞으로 노인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대응책 외에 노인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 규명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년퇴직의 연장, 연금제 확대실시, 노인복지시설 마련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것은 생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노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

노인문제의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의 건강과 관계되는 문제, 노인복지 등 다각적인 접근이 있겠으나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년층의 노후에 대한 인식, 현재의 준비정도, 노후계획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노인문제의 양상을 알아보는것도 중요할 것이다.

중년기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인생전반에 대한 개방적인 수용과 자기확대로 전 기능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성숙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이다.⁷⁾ 인생주기의 단계 구분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 연구는 중년기의 구분을 Havighurst 이론에 근거했다. Havighurst는 인생기 주기를 아동초기(0-6세), 아동중기(6-12,13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초기(18-30세), 중년기(30-60세), 성숙후기(60세 이후)의 6단계로 나누고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첫째, 10대에 돌입한 자녀들을 책임감있고 성실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것, 둘째,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성취하는것, 셋째, 개인의 직업적 경력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유지하는것, 넷

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意識構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 1984.

⁵⁾ 최성재, 老人福祉의 主要課題와 그 解決策,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1988.

⁶⁾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⁷⁾ 유안진, 인간발달신경, 문음사, 1987, pp.333~334.

째, 여가시간을 활용하는것,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것, 여섯째, 노화해 가는 부모들에 대하여 적응하는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⁸⁾

본 연구에서는 Havighurst의 구분에 따라 30세에서 60세의 중년을 대상으로 노후에 대한 계획, 노후문제의 인식, 준비상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1.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한다.
2. 부양에 따른 지향태도를 파악한다.
3. 연금혜택이 가능한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의 노후준비상황을 파악한다.
4. 양로원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모집단을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하여 표본을 연령별(30, 40, 50세), 성별로 동수가 되도록 할당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광주보건전문대학 보건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수집기간은 1991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였다. 2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부적절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것을 제외하고 205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연령범위	조사대상수
30대	61 (29.8%)
40대	59 (23.9%)
50대	71 (34.6%)
기타	14 (6.7%)
합	205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의 작성하였다. 질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1문항, 노후준비에 관련된 사항 6문항, 부양과 관련된 8문항, 양로원과 관련된 4문항, 전반적으로 노후와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단순빈도, 백분율

⁸⁾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7, pp.41~43.

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분석하였고 선정된 독립변수들과는 상관관계를 보았다.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자로서 전남·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확대 해석할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전체 205명중 남자가 99명(48.3%) 여자가 106명(51.7%)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분포는 30대가 61명(29.8%) 40대 59명(23.9%) 50대 71명(34.6%) 20대 후반과 60대 초반이 14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합쳐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국졸 48명(23.4%) 중졸 52명(25.4%) 고졸 70명(34.1%) 대졸 이상이 35명(17%)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 수입은 50만원 이하 46명(22.5%) 70만원 이하 61명(29.8%) 100만원 이하 51명(24.9%) 100만원 이상이 41명(20%)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주부가 54명(26.3%)으로 제일 많았고 상업이나 서비스업, 사무직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냐는 질문에 모시고 있지않다가 153명(74.6%)으로 훨씬 많았고 채상자들의 약 70%가 현재 결혼한 자녀가 없었다. 자녀가 결혼후 같이 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0%정도 였으며 앞으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7%에 불과했다.

2.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면

1) 노인지각나이

몇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9명(4.4%)이 55세부터라고 응답하였고 60세부터가 62명(30.2%), 65세가 89명(43.4%), 70세이상이 44명(21.5%)으로 65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이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85)의 노령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45%가 60세를 노령선이라고 하였고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였던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 하면서 노령선도 높아지고 있는것을 나타내 준다.<표-3>

2) 노후문제에 대한 의식

평소에 노후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준비중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명(21%),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려고 준비중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97명(47.3%)으로 약 70%의 대상자들이 노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여가 거의 비슷하게 노후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99	48.3
	여	106	51.7
연령	30-39세	61	29.8
	40-49세	59	23.9
	50-59세	71	34.6
	기타	14	6.7
결혼상태	결혼	180	87.8
	미혼	9	4.4
	이혼	1	0.5
	사별	13	6.3
	기타	2	1.0
학력	국졸	48	23.4
	중졸	52	25.4
	고졸	70	34.1
	대졸이상	35	17.0
직업	전문직·사무직·공무원	38	18.5
	기술직	23	11.2
	단순노무자	13	6.3
	상업·서비스업	49	23.9
	농업·축산업	20	9.8
	주부	54	26.3
	기타	8	3.9
월수입	50만원 이하	46	22.4
	51-70만원	61	29.8
	71-100만원	51	24.9
	101만원 이상	41	20.0
	무응답	6	2.6
부모님과 동거	예	51	24.9
	아니오	154	75.1
결혼을 한 자녀	있다	56	27.3
	없다	142	69.3
	무응답	7	3.4
연금혜택	예	69	33.7
	아니오	132	64.4
	무응답	4	2.0

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50대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중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월 수입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중이다 라고 응답하였다.<표-4>

〈표 3〉 노인지각 나이

나 이	빈 도	백분율(%)
55세부터	9	4.4
60세부터	62	30.2
65세부터	89	43.4
70세부터	44	21.5
기 타	1	0.5

〈표 4〉 노후문제에 대한 준비

항 목		당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 평소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합 계
구 분	항 목	깊이 생각하고 준비중이다.	계획을 세울려고 준비중이다.	별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성 별	남	20(20.2)	48(48.5)	28(28.3)	3(3.0)	99
	여	23(21.7)	49(46.2)	33(31.1)	1(0.9)	106
연 령	30대	9(14.8)	31(50.8)	20(32.8)	1(1.6)	61
	40대	8(13.6)	30(50.8)	20(33.9)	1(1.7)	59
	50대	22(31.0)	31(43.7)	17(23.9)	1(1.4)	71
	기 타	4(28.6)	5(35.7)	4(28.6)	1(7.1)	14
학 력	국 졸	12(25.0)	20(41.7)	15(31.3)	1(2.1)	48
	중 졸	15(28.8)	22(42.3)	14(26.9)	1(1.9)	52
	고 졸	9(12.9)	42(60.0)	18(25.7)	1(1.4)	70
	대 졸	7(20.0)	13(37.1)	14(40.0)	1(2.9)	35
수 입	50만원 이하	11(23.9)	19(41.3)	16(34.8)		46
	51-70만원	11(18.0)	29(47.5)	20(32.8)	1(1.6)	61
	71-100만원	8(15.7)	31(60.8)	12(23.5)		51
	100만원 이상	10(24.4)	16(39.0)	12(29.3)	3(7.3)	41
	무 응 답	3	2	1		6
전 체		43(21.0)	97(47.3)	61(29.8)	4(2.0)	205

노후생활의 문제중 거머짓이 제일 크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약 50%이상이 건강문제라고 답하였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건강문제 103(50.2%), 경제적 문제 46(22.4%), 고독·소외감 30(14.6%), 일이 없는데 따르는 역할 상실문제 17(8.3%) 부양문제(4.4%)의 순으로 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1,2순위가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역할 상실의 문제가 3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는 역할 상실의 문제가 5위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는 가사일이나 양육을 도와줌으로서 일이 없는데 따르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1순위 모두 건강문제가 크다고 답하였으며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문제가 크다고 답하는 확률이 낮았다. 국졸과 중졸에서는 일이 없는데 따르는 역할상실의 문제가 제일 낮고 대졸에서는 건강문제 다음 2위로 역할상실의 문제가 크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 살펴볼 때도 이와 유사하게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역할상실의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클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노인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 노인문제의 많은 원인이 되고있는 부양의 문제는 응답자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표-5>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과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에서는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자식에 대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준비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다. 수입별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71-100만원 수입에 해당하는 그룹이 자식에 대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준비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고 직업에서는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룹일수록 자신의 삶을 자식의 삶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식에 대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준비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6>

노인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가 35.6%로 가장 높고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가 34.6%, 자식에게 있다 27.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가 42.6%로 가장 높고 자식에게 있다 19.7%로서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가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낮았다. 대졸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가장 높았고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고 응답한 확률은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입별로 살펴보면 71-100만원사이에 속한 그룹이 국가 또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고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았으며 국가

〈표 5〉 노후문제에 대한 인식

문항 구분		당신의 노후생활중 어떤 문제가 제일 크리라 생각하십니까?					합계
		경제적 문제	부양 문제	건강문제	고독 소외감	일이 없는데 따르는 역할상실 문제	
성 별	남	21(21.2)	3(3.0)	53(53.5)	10(10.1)	12(12.1)	99
	여	25(23.6)	6(5.7)	50(47.2)	20(18.9)	5(4.7)	106
연 령	30 대	11(18.0)	2(3.3)	28(45.9)	11(18.0)	9(14.8)	61
	40 대	17(28.8)	3(5.1)	30(50.8)	4(6.8)	5(8.5)	59
	50 대	17(23.9)	4(5.6)	36(50.7)	11(15.5)	3(4.2)	71
	기 타	1		9	4		14
학 력	국 졸	16(33.3)		25(52.1)	6(12.5)	1(2.1)	48
	중 졸	13(25.0)	5(9.6)	24(46.2)	8(15.4)	2(3.8)	52
	고 졸	15(21.4)	3(4.3)	39(55.7)	8(11.4)	5(7.1)	70
	대 졸	2(5.7)	1(2.9)	15(42.9)	8(22.9)	9(25.7)	35
수 입	50만원 이하	11(23.9)	1(2.2)	25(54.3)	7(15.2)	2(4.3)	46
	51-70만원	17(27.9)	3(4.9)	29(47.5)	8(13.1)	4(6.6)	61
	71-100만원	10(19.6)	2(3.9)	27(52.9)	7(13.7)	5(9.8)	51
	100만원 이상	7(17.1)	2(4.9)	19(46.3)	7(17.1)	6(14.6)	41
	무응답	1	1	3	1		6
직 업 별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2(5.3)	1(2.6)	21(55.3)	7(18.4)	7(18.4)	38
	기술직	7(30.4)	1(4.3)	9(39.1)	3(13.0)	3(13.0)	23
	단순노무자	4(30.8)	1(7.7)	6(46.2)	1(7.7)	1(7.7)	13
	상업 서비스업	12(24.5)	4(8.2)	26(53.1)	2(4.1)	5(10.2)	49
	농업 축산업	5(25.0)		11(55.0)	4(20.0)		20
	주부 무직	14(25.9)	2(3.7)	27(50.0)	10(18.5)	1(1.9)	54
	기 타	2		3	3		8
전 체		46(22.4)	9(4.4)	103(50.2)	30(14.6)	17(8.3)	205

〈표 6〉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문항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준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구분	반응			
	성별			
	남	41(41.4)	58(58.6)	99
	여	43(40.6)	63(59.4)	106
연령	30대	11(18.0)	50(82.0)	61
	40대	25(42.4)	34(57.6)	59
	50대	39(54.9)	32(45.1)	71
	기타	9	5	14
학력	국졸	28(58.3)	20(41.7)	48
	중졸	26(50.0)	26(50.0)	52
	고졸	27(38.6)	43(61.4)	70
	대졸	3(8.6)	32(91.4)	35
수입	50만원 이하	26(56.5)	20(43.5)	46
	51-70만원	31(50.8)	30(49.2)	61
	71-100만원	9(17.6)	42(82.4)	51
	100만원 이상	15(36.6)	26(63.4)	41
	무응답	3	3	6
직업별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6(15.8)	32(84.2)	38
	기술직	7(30.4)	16(69.6)	23
	단순노무자	6(46.2)	7(53.8)	13
	상업 서비스업	17(34.7)	32(65.3)	49
	농업 축산업	15(75.0)	5(25.0)	20
	주부 무직	29(53.7)	25(46.3)	54
	기타	4	4	8
부모님을 모신경험	있다	17(33.3)	34(66.7)	51
	없다	67(43.1)	87(56.9)	153
	무응답	1		
전체		84(41.0)	121(59.0)	205

또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부모님을 모신 경험에 따라 비교해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확률이 낮았다.<표-7>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금혜택의 분석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금혜택을 받는 집단과 받지않는 집단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전체 505명의 대상자중 혜택을 받지않는 집단이 62.4%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혜택을 받는다가 30대에서 54.1%로 가장 높고 50대에서 22.5%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연금혜택을 받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별로는 71-100만원 사이의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연금을 받는 확률이 높았다. 71-100만원 사이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많은 집단보다 연금혜택을 받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것은 71-100만원 사이의 수입에 해당되는 집단이 직장생활을 하는 자가 많고 사료되며 이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사무직·공무원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연금을 받는다가 65.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한 바와 같았다.<표-8>

4) 부양에 대한 태도

부양에 관한 일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자식에게 있다가 40.5%, 본인에게 있다 29.3%, 아들에게 있다 14.1%, 장남에게 있다 10.7%, 국가나 사회에 있다 4.4%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이는 배계희^{*)}의 연구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즉 자식들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비율이 높지만 서서히 부모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가족부양에서 자기부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통적인 동거부양이 현대사회에서는 자식과 부모사이에 많은 갈등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았으며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남자가 더 많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가 많았고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작았다. 수입별로는 71-100만원사이의 소득에 속하는 집단에서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가 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71-100만원사이의 소득집단이 연금혜택이 제일 높은 사실을 고려해 볼때 이들이 다른집단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책임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농업·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주부들이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많았다. 부모를 모신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알아본 결과 부모를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를 모신 경험이 그들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9>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원하는 부양의 형태를 보면 별거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응답이

<표 7> 노인문제의 책임소재

문항 구분		노인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가족	국가 또는 사회	기타	합계
성별	남	36(36.4)	24(24.2)	36(36.4)	3	99
	여	37(34.9)	32(30.2)	35(33.0)	2	106
연령	30대	20(32.8)	12(19.7)	26(42.6)	3	61
	40대	23(39.0)	18(30.5)	18(30.5)		59
	50대	27(38.0)	19(26.8)	23(32.4)	2	71
	기타	3	7	4		14
학력	국졸	15(31.3)	20(41.7)	12(25.0)	1	48
	중졸	22(42.3)	17(32.7)	11(21.2)	2	52
	고졸	21(30.0)	16(22.9)	33(47.1)		70
	대졸	15(42.9)	3(8.6)	15(42.9)	2	35
수입	50만원 이하	14(30.4)	17(37.0)	15(32.6)	0	46
	51-70만원	20(32.8)	18(29.5)	20(32.8)	3	61
	71-100만원	21(41.2)	6(11.8)	23(45.1)	1	51
	100만원이상	16(41.5)	13(31.7)	11(26.8)	1	41
	무응답	2	2	2		6
직업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18(47.4)	3(7.9)	15(39.5)	2	38
	기술직	10(43.5)	8(34.8)	5(21.7)		23
	단순노무자	7(53.8)	4(30.8)	2(15.4)		13
	상업 서비스업	17(34.7)	13(26.5)	19(38.8)		49
	농업 축산업	3(15.0)	7(35.0)	9(45.0)	1	20
	주부 무직	16(29.6)	16(29.6)	20(37.0)	2	54
	기타	2	5	1		8
부모님 경험	있다	19(37.3)	13(25.5)	18(35.3)	1	51
	없다	54(35.3)	42(27.5)	53(34.6)	4	153
	무응답		1			1
전체		73(35.6)	56(27.3)	71(34.6)	5	205

〈표 8〉 연금혜택의 유무

문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퇴직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 다	없 다	합 계
구분	성 별			
	남	36(36.4)	63(63.6)	99
	여	33(31.1)	73(68.8)	106
연령	30 대	33(54.1)	28(45.9)	61
	40 대	16(27.1)	43(72.9)	59
	50 대	16(22.5)	55(77.4)	71
	기 타	4	9	14
학 력	국 졸	6(12.5)	42(87.5)	48
	중 졸	11(21.2)	41(78.8)	52
	고 졸	32(45.7)	38(54.3)	70
	대 졸	20(57.1)	15(42.8)	35
수 입	50 만원 이하	11(23.9)	34(73.9)	46
	51-70 만원	13(21.3)	45(73.8)	61
	71-100 만원	26(51.0)	25(49.0)	51
	100 만원 이상	19(46.3)	22(53.7)	41
	무 응 답		6	6
직업별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25(65.8)	13(34.2)	38
	기술직	10(43.5)	13(56.5)	23
	단순노무자	4(30.8)	9(69.2)	13
	상업 서비스업	9(18.4)	40(81.6)	49
	농업 축산업	2(10.0)	18(95.0)	20
	주부 무직	18(33.3)	26(66.7)	54
	기 타	1	7	8
전 체		69(33.7)	136(62.4)	205

<표 9>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문 항 구분		부모의 부양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남	아들	자식	본인	국가나 사회	기타	합계
성 별	남	5(5.1)	17(17.2)	39(39.4)	31(31.3)	6(6.1)	2	99
	여	17(16.0)	12(11.3)	44(41.5)	29(27.4)	3(2.8)	1	106
연 령	30 대	3(4.9)	6(9.8)	25(41.0)	25(41.0)	2(3.3)		61
	40 대	4(6.8)	10(16.9)	25(42.4)	15(25.4)	4(6.8)	1	59
	50 대	12(16.9)	11(15.5)	29(40.8)	17(23.9)	1(1.4)	1	71
	기 타	3	2	4	3	2		14
학 력	국 졸	11(22.9)	7(14.6)	22(45.8)	5(10.4)	3(6.3)		48
	중 졸	5(9.6)	10(19.2)	20(38.5)	14(26.9)	1(1.9)	2	52
	고 졸	5(7.1)	10(14.3)	28(40.0)	26(37.1)	1(1.4)		70
	대 졸	1(2.9)	2(5.7)	13(37.1)	15(42.9)	4(1.4)		35
수 입	50만원 이하	7(15.2)	7(15.2)	20(43.5)	10(21.7)	2(4.3)		46
	51-70만원	6(9.8)	12(19.7)	26(42.6)	15(24.6)	2(3.3)		61
	71-100만원	4(7.8)	5(9.8)	19(37.3)	18(35.3)	4(7.8)		51
	100만원 이상	4(9.8)	5(12.2)	15(36.6)	15(36.6)	1(2.4)		41
	무응답	1		3	2			6
직 업 별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11(2.6)	3(7.9)	15(39.5)	17(44.7)	2(5.3)		38
	기술직	1(4.3)	5(21.7)	8(34.8)	7(30.4)	2(8.7)		23
	단순노무자	1(7.7)	2(15.4)	7(53.8)	1(7.7)	1(7.7)		13
		5(10.2)	4(8.2)	18(36.7)	21(42.9)	1(2.0)		49
	농업 축산업	3(15.0)	6(30.0)	9(45.0)	1(5.0)	1(5.0)		20
	주부 무직	8(14.8)	8(14.8)	24(44.4)	12(22.2)	1(1.9)	1	54
	3	1	2	1	1		8	
부모 모신 경험 을 함	있	4(7.8)	7(13.7)	18(35.3)	16(31.4)	4(7.8)	2	51
	없	17(11.1)	22(14.4)	65(42.5)	44(28.8)	5(3.3)		153
	무응답	1						
전 체		22(10.7)	29(14.1)	83(40.5)	60(29.3)	9(4.4)	2	205

〈표 10〉 부양형태에 대한 태도

문항		어떤 형태로 부양받기를 원하십니까?					합계
		동거·경제적 부양	동거·경제적 자립	별거·경제적 부양	별거·경제적 자립	기타	
성 별	남	19(19.2)	15(12.2)	12(12.1)	53(53.5)		99
	여	17(16.0)	13(12.3)	30(28.3)	40(37.7)	6	106
연 령	30 대	4(6.6)	10(16.4)	6(9.8)	39(63.9)	2	61
	40 대	7(11.9)	9(15.3)	15(25.4)	25(42.4)	3	59
	50 대	21(29.6)	9(12.7)	14(19.7)	27(38.0)		71
	기 타	4		7	2	1	14
학 력	국 졸	13(27.1)	4(8.3)	20(41.7)	10(20.8)	1	48
	중 졸	15(28.8)	9(17.3)	7(13.5)	20(38.5)	1	52
	고 졸	6(8.6)	13(18.6)	11(15.7)	37(52.9)	3	70
	대 졸	2(5.7)	2(5.7)	4(11.4)	26(74.3)	1	35
수 입	50 만원 이하	13(28.3)	5(10.9)	9(19.6)	17(37.0)	2	46
	51-70 만원	14(23.0)	8(13.1)	14(23.0)	24(39.3)	1	61
	71-100 만원	3(5.9)	11(21.6)	10(19.6)	26(51.0)	1	51
	100 만원 이상	6(14.6)	4(9.8)	6(14.6)	23(56.1)	1	41
	무 응 답			3	3		6
직 업 별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3(7.9)	5(13.2)	4(10.5)	25(65.8)	1	38
	기술직	3(13.0)	3(13.0)	2(8.7)	15(65.2)		23
	단순노무자	2(15.4)	3(23.1)	2(15.4)	5(38.5)	1	13
	상업 서비스업	11(22.4)	6(12.2)	7(14.3)	25(51.0)		49
	농업 축산업	6(30.0)	3(15.0)	5(25.0)	6(30.0)		20
	주부무직	11(20.4)	6(11.1)	18(33.3)	16(29.6)	3	54
	기 타	1	2	4	1		8
부모 모심 남경 을험	있 다	7(13.7)	6(11.8)	10(19.6)	28(54.9)		51
	없 다	28(18.3)	22(14.4)	32(20.9)	65(42.5)	6	153
	무 응 답	1					1
연혜 금액	있 다	6(16.7)	14(20.3)	9(13.0)	39(56.5)	1	69
	없 다	30(22.1)	14(10.3)	33(24.3)	54(39.7)	3	136
전 체		36(17.6)	28(13.7)	42(20.5)	93(45.4)	6	205

〈표 11〉 자녀와의 동거여부

문항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합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성별	남	39(39.4)	59(59.6)	1	99
	여	47(44.3)	59(55.7)		106
연령	30대	13(21.3)	48(78.7)		61
	40대	26(44.1)	33(55.9)		59
	50대	39(54.9)	31(43.7)	1	71
	기타	8	6		14
학력	국졸	28(58.3)	20(41.7)		48
	중졸	27(51.9)	25(48.1)		52
	고졸	26(37.1)	43(61.4)	1	70
	대졸	5(14.3)	30(85.7)		35
수입	50만원 이하	25(54.3)	20(43.5)	1	46
	51-70만원	33(54.1)	28(45.9)		61
	71-100만원	17(33.3)	34(66.7)		51
	100만원 이상	11(26.8)	30(73.2)		41
	무응답		6		6
직업	전문직 관리직 공무원	8(21.1)	30(78.9)		38
	기술직	6(26.1)	17(73.9)		23
	단순노무자	8(61.5)	5(38.5)		13
	상업 서비스업	23(46.9)	25(51.0)	1	49
	농업 축산업	13(65.0)	7(35.0)		20
	주부무직	24(44.4)	30(55.6)		54
	기타	4	4		8
부모님경험	있다	18(35.3)	33(64.7)		51
	없다	61(43.8)	85(55.6)	1	153
	무응답	1			1
연혜금액	있다	22(31.9)	47(68.1)		69
	없다	61(46.2)	70(53.0)	1	132
	무응답	3	1		4
전체		86(42.0)	118(57.6)		205

가장 많았다. 2순위는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양받고 싶다. 3순위가 자식과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양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현재 우리사회는 별거와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노후에 독립적 생계능력을 요구한다. 성별로는 남자가 별거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별거와 경제적자립을 원했다. 부모를 모신 경험이 있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거와 경제적자립을 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표- 10〉

5) 자녀와의 동·별거에 대한 태도

현재 중년들이 노후에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였고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였다.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났다.〈표- 11〉

위와같은 결과는 김은선의⁹⁾ 연구에서 청·장년의 지향 거주형태가 따로 살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36.7%인데 비하여 본 조사에서는 57.6%로 갈수록 핵가족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결혼하였을때 어떤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결혼후 얼마동안 동거하다가 분가시킨다가 38.5%로 제일 선호하는 형태였으며 처음부터 분가시킨다는 33.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거하다가 분가시키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였으며 여자는 처음부터 분가시키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수가 남자에 비해 많았다.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동거후 분가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였다.〈표- 12〉

6) 양로원에 대한 인식

양로원에 대한 중년층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9.8% 부정적인 반응이 48.3%로 나타났다.〈표- 13〉 현재보다 양로원의 인식과 시설이 좋아진다면 양로원에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갈 생각이 있다가 19% 없다가 38.5%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는 양로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양로원이 시설과 인식이 좋아진다면 시설 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14〉

⁹⁾ 김은선, 노후안정을 위한 청장년의 준비의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표 12〉 거주 지향형태

문항 구분		자녀가 결혼하였을때 당신과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후 동거	얼마동안 동거후 분가	결혼후 분가 시켰다가 동거	처음부터 분가	기타	합계
성별	남	12(12.1)	42(42.9)	12(12.1)	28(28.3)	5	99
	여	14(13.2)	37(34.9)	7(6.6)	41(38.7)	7	106
연령	30대	2(3.3)	23(37.7)	8(13.1)	21(34.4)	7	61
	40대	7(11.9)	23(39.0)	5(8.5)	21(35.6)	3	59
	50대	16(22.5)	27(38.0)	6(8.5)	20(28.2)	2	71
	기타	1	6		7		14
	있다	4(7.8)	25(49.0)	5(9.8)	14(27.5)	3	51
	없다	22(14.4)	54(35.3)	13(8.5)	55(35.9)	9	153
	무응답			1			1
전체		26(12.7)	79(38.5)	19(9.3)	69(33.7)	12	205

〈표 13〉 양로원에 대한 인식(1)

문항	당신은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괜찮다	잘모르겠다	싫다	무응답	합계
	20(9.8)	85(41.5)	99(48.3)	1	205

〈표 14〉 양로원에 대한 인식(2)

문항	현재보다 양로원의 인식과 시설이 좋아진다면 당신은 양로원에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항목	있다	잘모르겠다	없다	무응답	합계
	39(19.0)	85(41.5)	79(38.5)	2	205

Ⅲ. 결 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지향, 산업화, 도시화등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노후생활을 자녀의존에서 탈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59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수입, 직업, 학력, 부모님을 모신경험의 유무, 연금혜택의 유무등에 따라 노후문제에 관한 의식, 부양에 대한 태도, 노인문제 책임소재, 자녀와의 동거 희망여부, 양로원의 인식등을 알아보았다.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몇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노인지각나이를 알아본 결과 65세부터가 43.4%, 60세부터가 30.2%로 대부분 60-65세 나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68%이상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울려고 준비중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후생활에서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클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문제가 작은 반면 역할 상실문제가 클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자식에게 투자하는것과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자식에게 투자하는것이 노후의 준비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작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식에게 투자하는것과 노후의 준비는 별개라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 보았을때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려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것을 반영하듯 자식에게 투자하는것이 노후의 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넷째, 노인문제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약 70%가 본인과 국가나 사회에 있다 라고 하였으며 자식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27.3%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고 수입이 작을수록 노인문제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 라고 대답한 확률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자식에게의 투자와 노후준비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높듯이 노인문제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금혜택은 전체 응답자중 약 34%가 받을 수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혜택의 해당자가 많았다. 50대에는 22.5%만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곧 노인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연금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부모의 부양책임에 관한 질문에서는 아들·딸을 포함한 자식, 본인, 아들, 장남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부양형태에 대해서는 노후에 자식들과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원한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부양을 원한다 동거 하면서 경제적 부양을 원한다 동거를 하지만 경

제적 자립을 원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이 경제적 자립을 원하고 있으며 65%이상이 동거보다는 별거를 원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별거와 경제적 자립을 선호하였으며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동거·경제적부양을 많이 원했다.

여덟째, 부양형태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였을때 얼마동안 동거하다 분가시키는 형태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아홉째, 양로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것에 대해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9.8%로 매우 낮았으며 현재보다 양로원의 인식과 시설이 좋아진다면 양로원에 갈 의향이 있다 라고 19%가 응답함으로써 시설보호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있고 인식이 좋아진다면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질것이다.

위와같은 결과에서 현재의 중년층은 노인문제의 많은 책임을 본인이나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며 예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모든것을 투자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삶과 직접 결부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음이 여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50% 이상이 노후에 자식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 문제에 대해 국가나 사회적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노인기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는 물론 앞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부양을 권장하고 노인문제를 가족에게 넘기는 현재의 노인복지방향에 수정을 가해서 자녀들과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고 생의 후반부를 자신의 삶이 가치있다고 느끼면서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고범수 : 노인복지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2. 구은옥 :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3. 구자순 : 한국노인 건강보호 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노년학 (1986)
4. 김대현 : 가족제도의 변천과 경노사상, 국회보, 5 (1990)
5. 박재간 :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성과 전망, 노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pp.13 ~ 27(1988)
6. 박재간 :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1985)
7. 배계희 :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 ~ 45(1988)
8. 서병숙 :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9. 서병숙 :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86)
10. 성규택, 김조식 : 노인들의 안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988)
11. 양진석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2. 유희신 : 우리나라 주부의 노인부양의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 논문집, pp.41 ~ 56(1985)
13. 윤종주 :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전망, 한국노년학 (1988)
14. 윤진, 심재응 :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 한국노년학 (1986)

15. 이가옥 : 노인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국회보, 5 (1990)
16. 이가옥 :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 인구보건논집, 2, pp.92 ~115 (1989)
17. 이가옥, 권중동 : 노인가구의 형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4, pp.113 ~135(1989)
18. 이가옥 : 우리나라 노년 학 인구의 동향, 인구보건논집, 1, pp.119 ~135 (1989)
19. 이선자 : 노인의 사회복지정책, 대한간호, 7 (1989)
20. 정현철 :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21. 조유향 :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988)
22. 차애자, 손세권 : 한국의 양로원 노인실태, 인구보건논집, 2, pp.45 ~63 (1984)
23. 최성재 : 경노효친사상과 노인복지, 한국사회복지학, 13, pp.1 ~ 25 (1989)
24. 최순남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발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82)
25. 최재성 : 노인복지의 주요과제와 그 해결책, 노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pp.37 ~ 74 (1988)
26. 한영자 : 한국의 인구전환속도와 인구구조 변동, 인구보건논집, 1, pp.3 ~ 21 (1989)
27. 허훈 :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1988)
28. 현외성 :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82)

A Study on the Middle Aged's Idea of Preparation for Old Age

Kim, Me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elderly problem resulted from aging of people, industrialization and nuclearization of the family. Elderly problem becomes important social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iddle aged's idea of preparation for old age. To carryout the aim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The 220 aged 30-59 were interviewed by studen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

1. Most of the answers hope to prepared their old age and they tend to think that healthy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then the other problems .
2. The preparation of old age differs, according to their age, from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and occupation.
3. The image of asylum for the aged is very negative
4. Many people hoped to be independent not to live with their children in their old age. More educated and younger people tend to be more independent then the others.
5. Most of answers thought that their children have the duty of supporting them.